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兪光燮
印刷人 鄭九鎬
主幹 權奇悰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部長 張義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慶州大學
우편번호 681
경북 월성군 현곡면금장리 707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새學士들 社會로 첫발

25일 學位수여식 거행

博士19·碩士2백19명

전교 수석졸업에 金吾碩(무역)군

8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25일(경주대 28일) 오전 11시부터 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학사 2천4백50명 (경주대 5백14명) 석사 2백19명) 박사 19명으로 총 2천6백8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 수석은 4·5만점에 4·26점을 얻은 金吾碩(무역학과)군이 차지했으며, 졸정제로 인한 탈락자는 한명도 없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로 시작하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수석자 표창, 졸업답사, 이사장 축사, 졸업답사, 사훈서원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박사 및 단대수석, 공로상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 취득자

▲金甲起(文學) ▲趙任斗(哲學) ▲丁海洙(敎育學) ▲姜錫基(〃) ▲李圭復(法學) ▲金丙學(〃) ▲楊任仁(政治學) ▲金鑑經(經濟學) ▲李順龍(〃) ▲吳有善(〃) ▲金信雄(〃) ▲張光秀(經營學) ▲安仁燦(經濟學) ▲崔柱堅(農學) ▲金正雄(理學) ▲崔承鎬(工學) ▲李明善(〃) ▲金閔玉(工學) ▲金炳學(理學)

◇전체수석자

▲김오석(무역학과)

◇단과대수석자

▲佛敎大=두경화(신학과) ▲문과대=허정원(영문학과) ▲理科大=최혜영(화학과) ▲法政大=홍평기(정치외교학과) ▲經商大=최대주휴(법학과) ▲임화출(통계학과) ▲민경영(경영학과) ▲권무택(경영학과) ▲송관수(2부대·회계학과) ▲신찬식(2부대·회계학과) ▲박기홍(국문학과) ▲백승철(국문학과) ▲이전규(체육교육과) ▲남영자(불교학과) ▲탁진희(가정교육과) ▲박재복(행정학과) ▲이선재(체육교육과) ▲안재민(체육교육과) ▲정용범(공업행정학과) ▲김홍태(경영학과) ▲정승훈(경영학과) ▲이광훈(지리교육과) ▲최창수(선학과) ▲김광수(전기공학과) ▲박상우(전자계산학과) ▲이준우(독문과) ▲권태엽(사학과) ▲김성희(교육학과) ▲오영철(교육학과) ▲김춘명(일학과) ▲이기모(신학과) ▲윤재웅(국문과) ▲김현수(통계학과) ▲이추경(경영학과) ▲송열돈(농업생물학과) ▲김정희(화학 공학과) ▲최수택(수학교육과) ▲섭규용(2부대·경영학과) ▲김화출(통계학과) ▲민주휴(법학과) ▲박장순(무역학과) ▲진영수(전기공학과) ▲박천두(국문과) ▲이선재(체육교육과) ▲김홍태(경영학과) ▲정승훈(경영학과) ▲정승훈(경영학과) ▲이광훈(지리교육과) ▲최창수(선학과) ▲김광수(전기공학과) ▲박상우(전자계산학과) ▲이준우(독문과) ▲권태엽(사학과)

◇공로표창자

▲최중홍(국문과) ▲김금희(국어교육학과) ▲오영철(교육학과) ▲김춘명(일학과) ▲이기모(신학과) ▲윤재웅(국문과) ▲김현수(통계학과) ▲이추경(경영학과) ▲송열돈(농업생물학과) ▲김정희(화학 공학과) ▲최수택(수학교육과) ▲섭규용(2부대·경영학과) ▲김화출(통계학과) ▲민주휴(법학과) ▲박장순(무역학과) ▲백승철(국문과) ▲이전규(체육교육과) ▲남영자(불교학과) ▲탁진희(가정교육과) ▲박재복(행정학과) ▲이선재(체육교육과) ▲안재민(체육교육과) ▲정용범(공업행정학과) ▲김홍태(경영학과) ▲정승훈(경영학과) ▲이광훈(지리교육과) ▲최창수(선학과) ▲김광수(전기공학과) ▲박상우(전자계산학과) ▲이준우(독문과) ▲권태엽(사학과) ▲김성희(

博士學位 授與者

내년도 학위 수여

◇建築學 博士

◇金在鎭 博士

◇金世王 博士

◇安二熙 博士

◇金鍾雨 博士

◇丁鳳來 博士

◇鄭在一 博士

◇金鍾雨 博士

◇金在鎭 博士

◇李鍾雨 博士

◇李光秀 博士

◇吳秀雄 博士

◇李鍾雨 博士

◇李鍾雨 博士

◇李鍾雨

一體感조성이 주요관건

「총학생회」 부활 해설기사

학원自律의 관건으로 대두되어오던 「총학생회」 부활이 지난1월25일 「학도호국단 개편및 학생자치기구신설안」을 문교부가 승인함으로써 본 궤도에올랐다.

그동안 잇따른 소요사태와 시위등 대학내 정치적 복선을 내포한 기구의 존속으로 단정지어져 문제시되었던 「학도호국단」이 사실상 폐지됨에따라 총학생장 선출방법이었던 間選이 直選으로바뀌고 동시에 학생자치기구 운영도관이하게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總選시기에 이같은 학원문제의 잇슈를 들고나온점을 볼때 과연 「政治에 얽매인 自律」이 아닌 「自律을 위한 自律」인가에 대해선는 아직문 여운을 남긴다.

한편 졸업총의 건의안 승인과 함께 『월론 학국단의 기본정신 접맥과 총학생회 구성후 시행상의 혼란을 대비한다』는 단서조항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있다.

첫째, 자치활동 범위한계 및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총학생회」 구성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간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피선자의 자격등 학년제도 문제점 등 「총학생회」 구성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등 제조항문제·지도위원회 존속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등 「총학생회」 구성에 따른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학생대표의 피선자격을 「일정수준이상의 성적취득자」로 규정

셋째 회비의 징수및 집행을 학교당국이 지도하도록한 점등을 들수 있다.

이렇게 볼때 현론한는 호국단」체의 피선 자격, 학생활동 규제조항과 「지도위원회」 승인등 「명목상의명칭만 변경, 존속한다」는 것으로도 유추·해석될 수있다.

본교에서는 이미 회칙시안을 작성 했으며 「총학생회」 부활촉 준비위원회」도 구성할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문제시 되어오던 피선 자격·학생활동 규제조항문제·지도위원회 존속에 따른 예산집행 문제 등 「총학생회」 구성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간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피선자의 자격등 학년제도 문제점 등 「총학생회」 구성

地方文化 활성화방안

文化的인 정립에로의 나아감

내수행정 차원의 문화적 독립필요

자국민적 고유성 획득이 급선무

文化批評

朴柱官 〈시인·동문〉

地方時代가 열리고 있다. 이 뜻깊은 말은 中央집권적인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체계속에서의 수평적 운동을 뜻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상층부에의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뜻에서의 중앙 일탈화는 어렵다고 본다.

地方文化라 일컬을때의 의미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참여 보다는 웬지 모르게 지방기관에 의한 제도적인 제도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고있다. 과연 지역민으로서 文化라는 개념을 의식하고 사는 지식인을 포함한 생활인이 얼마나되는지 헤아려 보아도 가늠이가질 않는게 현실이다.

물론 지역사회에는 언론기관이나 대학교육기관등 여러 매체가 있어서 문화의 필요성과 전통 계승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진정으로 가져야할 문화의식의 확산이나 문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는가를 따지고 헤아리지는 않는것도 시정의 현실인 것이다.

지역문화인이라고 해서 中央紙나 잡지에 실린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文人, 화가, 수필을 쓰는 상업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문화 예술인만을 다루고 있는바, 지역 총체적인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문화계의 의미가 더욱 확산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교육을 포함하여 종교, 노동문제, 먹고 사는 경제문제까지 다루는 모든 이를 포함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지방문화인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다.

지방 문화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전제를 다는것은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官주도형의 행사위주에서 내실화를 기한는데서 출발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해서 논쟁의 실마리가 되고 그 토대위에 진정한 이념적 정립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승 발전에 의한 재창조 작업이 필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

地方文化의 대중을 이루는 면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지방의 예총을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친목회 비슷한 예술행위다. 즉 문협 기관지의 발행, 사진 전람회및 미술 전람회등이 연중 행사로 열린다.

둘째는 시·도에 세워져 있는 종합문예회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비로 입대료를 내어가며 들른 여기에는 이설이 있을수 있다. 타 개인 대여기관 보다 비싸다는 말도있다 — 자기의 열망을 위하여 벌이는 각종 전시회의 열림, 여기에는 어떤 뚜렷한 자기 걸음을 거치지 않은 아마추어 적인 발상이 깃들인 전문인들의 행위가 보인다.

세째는 지방에서 행해지고있는 특수한 분야의 예술적 경연을 통한 시장제도를 들수있다. 지역 주민과는 유리된 공동체적인 행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전문가들의 콘테스트는 직상이 나 있는 상황이다.

네째는 지방자치기관에 설치된 문예진흥위원회의 활성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그것은 경제적인 활성화 이전에 지방의 맥을 잇고 「내고장 가꾸기」란 명제를 걸고 있는 내수 행정차원에서의 문화적독립을 뜻하는 것이다.

지방 문화 시설의 확충을위하여 지역인의 협의회 구성같은것이 기성세대가 책임져야할 방안으로 본다.

또하나의 문제는 시·군에설치되어 있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상에서 이야기한것들은 촌의 세력판도에서 벌여지고있는 예술행위인만치 걸중의 시기가 왔다고 본다.

새로운 문화의 교육받은 이들의 태동은 지역문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작업이 되리라 보여진다. 출판들의등장은 모든 예술장르를 포용하고 있으며 소집단적인 국면을 활동이 문화의 전반적인 국면을 카버할때 출판문화까지도 포함해서 자생적인 문화의식을 생성하리라고 보여진다.

예를들면 남도에서 펴낸 「분단시 선집」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하야할 문화사적 작업을 집대성 했다는데서의의가 깊다고 볼수있다.

문화적인 정립에로의 나아감은 거론될때 정치적인 태도의 일부분을 흡수시킬수있고 마산이나 부산에서의 문화적인 출판 부크들, 나아가서는 대구의 지방 기업이 벌이는 문화센타의 개강등 이 모든 작은학교들이 모여질때 문화의 힘이 서서히 보여 지리멸여진다.

혼돈과 신생의 어수선함속에서도 빛나는 문화가 나왔음은 세계사적인 주지의 사실이므로 태어난 곳에서의 뿌리 박음이 지역민 각자의 마음속에 우선 깊이 드리워져 있어야한다. 여기에는 모든 문화의 자국민적인 요소가 더욱더 강해질수있는 고유성 획득이 급선무가되는결 강조하고 싶을뿐이다.

「최선」의 일념으로 생활

—수석졸업者와 함께

金吾碩 군

『단대수석은 예상했지만 전체수석은 뜻밖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저보다 열심히 공부한 다른 學友들께 약간 미안할 따름입니다』 전학년 평점평균 4·5점만점에 4·26을얻어 이번에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하게된 金吾碩(무역·4)군은 겸손하게 소감을털어놓는다.

78년 검정고시를 거쳐 本校에 입학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81년도에 복학, 학업에 精進한 끝에 오늘의 기쁨을 얻은 金군은 『재학중 특별한 써클활동은 안했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나갔단』고.

2남4녀중 차남인 金군은 전공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는것이 가장 즐거운 취미라며 아울러 『단편적인것을 지양, 넓은 안목으로 공부하고 졸은 시야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자기의 양식을 다져나가야하는 시간대가 되어야한다』고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대해 따뜻하게 한마디.

학점의 노예가 되어있는 요즘의 세태에 대해서는 『성취성함의 척도인 점수가 이 사회의 최소한의 자(尺)이긴 하지만 성실을 제외했을 때의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서 얻은 수치가 지향되어야 한단』고 덧붙인다.

『대학인의 사회참여가 일부언론의 편향적 보도에 의해 오도되고 있지만, 학생운동은 우리의 기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단』고 힘주어 말하며 대학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현재 금강섬유주식회사 에 출근하고 있는 金군은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좌우명 으로 『가능한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공부를하겠다』며 학업을 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美〉

도서관서 보낸 48년

정년퇴임 직원과 함께

앞으로 저술사업에 힘쓸 계획

朴熙永 씨

오는 28일 정년퇴임을 맞게된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朴熙永(62세)씨.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국립도서관 司書일에 뛰어들면서부터 오늘날까지 48년간도서관에서만보냈죠』.

朴과장은 지난 달 말을 되돌아보는듯 지그시 눈을 감는다. 『해방후 1년동안 국립도서관 학교를 다닌뒤 계속 독학, 22세의 나이로 국립도서관 사서과장이 되어 이날까지 과장을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선 가장 오랫동안 과장직을 맡았을것』이라는 朴과장의 스스럼없는 미소가 입고 있는 한복보다 더없이 수수하다.

『本校에 오기전에는 ○○여대 도서관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도서관학과의 강의도 해보았지요』 本校 도서관 사서과장직을 맡은 해는 지난71년도. 73년에는 협의회를 조직, 사립도서관 대학교 학위논문을 교환하여 도서관에 비치했는가하면 他대학 도서관과 합계 외국잡지구입등합록을 작성, 서로 주고받아왔다.

한편 재직중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자료를 모아 「記事索引目錄」「占書目錄」등의 책자를 만들기도.

도서관에 비해 예산문제로 작석수는 다소 떨어지지만 조직과 시설면에선 월등히 앞선다』고 朴과장은 강조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저술사업에 온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篆書子典』을 일본에서 출간하였으며 「한국도서관사연구」라는 논문도 썼다. 현재는 6년동안 힘써 정리해온 「譜」를 약 1만장 정도 탈고하고있다고. 『살아가는데 유혹이 많을건데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말고 살기를…』 부탁하는 朴과장은 洪順子(63세) 여사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하여 지금은 홍은동 자택에서 두내외분만 함께 살고계신다. 〈炳〉

큰스승, 어진 東國人이시어

성봉 선생님을 그리며

홍 신 선

그 때
石造館 지하 강의실
民俗學概論 시간이 끝나고 우리들
다 식은 마음들로
추위 등 돌려 막으며 모여 앉았을 때
「야 이놈, 너 이리와 같이 앉아」
혼자 창 옆에 섭처럼 오도마니 앉은
학생, 어울려 앉게 하시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가슴에
지펴주셨다.

그렇게 근엄하고 자애로우셨던 스승,
東國人 가운데 참 東國人이셨던
성봉 선생님, 당신은
어느 講義室에서 자애로운 음성을 흘리십니까
누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어느 추운 마음들을 다독이십니까.

오늘도
石造建物 차거운 돌벽에서
二十 몇 년을 건너 뛰어
들릴 것 같은 당신의 말씀
그 교탁 그 강의실 다 그대로인데
선생님,
어데 가셨읍니까.

우리들 마음에서 마음으로 발자취도 없이
꼬장꼬장하신 老軀 그대로,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대로
어데를 다니십니까.

〈詩人·同門〉

떠나는 아쉬움

卒業

前에 한 시대를 마감하고 目구해 다가온 또 한 시대 학업과 낭만을 보냈다는 울퉁진 각오에서 출발해 휴강주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꿀을 맺게되는 나를 발견은 누구나 자기나름대로의 계획 낭만을 맞이함에 있어 사람들과 결산, 그리고 계획 대학생활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간직하기 마련인 것 같다. 이제 얼마후면 내 젊음의 중요한 시간들을 해야 할 작별의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그간의 일들을 돌이켜 보며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한다.

학업과 낭만을 돌이켜 보겠다는 각오에서 위원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꿀을 맺게되는 나를 발견하고 큰 공간에서 내 좌의 대학생활은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것같다.

강의실의 愛讀과 시험도 들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친목회 비슷한 예술행위다. 즉 문협 기관지의 발행, 사진 전람회및 미술 전람회등이 연중 행사로 열린다.

둘째는 시·도에 세워져 있는 종합문예회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비로 입대료를 내어가며 들른 여기에는 이설이 있을수 있다. 타 개인 대여기관 보다 비싸다는 말도있다 — 자기의 열망을 위하여 벌이는 각종 전시회의 열림, 여기에는 어떤 뚜렷한 자기 걸음을 거치지 않은 아마추어 적인 발상이 깃들인 전문인들의 행위가 보인다.

세째는 지방에서 행해지고있는 특수한 분야의 예술적 경연을 통한 시장제도를 들수있다. 지역 주민과는 유리된 공동체적인 행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전문가들의 콘테스트는 직상이 나 있는 상황이다.

네째는 지방자치기관에 설치된 문예진흥위원회의 활성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그것은 경제적인 활성화 이전에 지방의 맥을 잇고 「내고장 가꾸기」란 명제를 걸고 있는 내수 행정차원에서의 문화적독립을 뜻하는 것이다.

지방 문화 시설의 확충을위하여 지역인의 협의회 구성같은것이 기성세대가 책임져야할 방안으로 본다.

또하나의 문제는 시·군에설치되어 있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상에서 이야기한것들은 촌의 세력판도에서 벌여지고있는 예술행위인만치 걸중의 시기가 왔다고 본다.

새로운 문화의 교육받은 이들의 태동은 지역문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작업이 되리라 보여진다. 출판들의등장은 모든 예술장르를 포용하고 있으며 소집단적인 국면을 활동이 문화의 전반적인 국면을 카버할때 출판문화까지도 포함해서 자생적인 문화의식을 생성하리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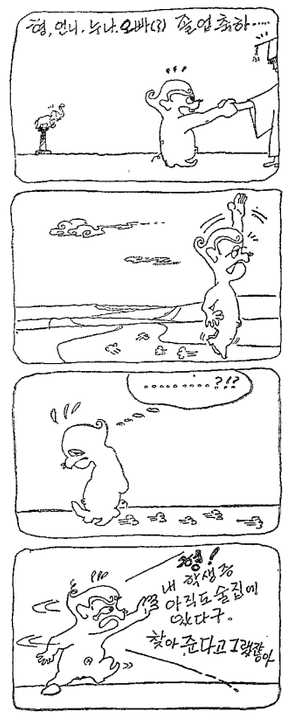
예를들면 남도에서 펴낸 「분단시 선집」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하야할 문화사적 작업을 집대성 했다는데서의의가 깊다고 볼수있다.

문화적인 정립에로의 나아감은 거론될때 정치적인 태도의 일부분을 흡수시킬수있고 마산이나 부산에서의 문화적인 출판 부크들, 나아가서는 대구의 지방 기업이 벌이는 문화센타의 개강등 이 모든 작은학교들이 모여질때 문화의 힘이 서서히 보여 지리멸여진다.

혼돈과 신생의 어수선함속에서도 빛나는 문화가 나왔음은 세계사적인 주지의 사실이므로 태어난 곳에서의 뿌리 박음이 지역민 각자의 마음속에 우선 깊이 드리워져 있어야한다. 여기에는 모든 문화의 자국민적인 요소가 더욱더 강해질수있는 고유성 획득이 급선무가되는결 강조하고 싶을뿐이다.

笑怒公

양기훈 <11>



민족의 노래 민중…

김지하 著

새책 안내

金芝河의70年代 읽혀질수없던 작품 묶음이 「민족의노래 민중의 노래」란 제목으로 엮어져나왔다.

70년대의 시대상황을 민중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櫻賊歌」 「蕓氏物語」의 譚詩와 「金冠의 예수」 「구리 李舜臣」 등 두편의 戲曲, 그리고 評論으로 「諷刺냐 自殺이냐」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를 싣고 있으며 「민중은 생동하는 실체」라는 對談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東光出版社刊·242面·3,000원>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실천불교·2

불교를 새롭게, 중생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역사를 새롭게라는 기치아래 발간되는「실천불교·2」가「오늘과 내일을위하여」라는제목으로 발간됐다.

「찬란한 전통」이라는 틀속에서벗어나 발전을위한 시대의 동참을 모색하는 이책은「전통과발전」이라는 윤호진 교수의 글을 필두로 「불교를 새롭게」라는 소고 6편과 論文·서평·時論·특별기고·詩·소설등을 다양하게 싣고있다.

<시인사刊·370面·3,500원>

메아리

이유있는 세대

▲自然은 누구에게나 公平하고 順理的이다. 動物에게는 자기자신을 보호할수있는 능력과 수단을 주었고, 人間에게는 보이지않는 절대적 힘인 理性을 주었다. 특히 이 모든 萬物을 염매여 놓는 生과 死의 時間을 주었고 이를 안에 놓이게했다. 그래서 時間은 가장 귀중하면서도 무서운 人間의 敵이기도하며, 또한 끊을래야 끊을수없는 영원한 친구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날은 이런 시간의 공식·비공식 절차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며 이산을 또한 결과와 離別이라는 명확한 회진들이라는 다분히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이의 발생들은 충분할 것이다. 어유는 한다.

▲혼히들 흔한 세상을 두고 난세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닐런지.

특히 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깊은 대학을 볼때 대학의 문제가 곧바로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진출후에도 대학인의 문제는사회의 문제로 보면 대학인의 자책은 태어난 사색아처럼 실험실의 약물냄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또다른 만날과 의미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의미있는 만날은 곧 헤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狀況상 예견 고통을 사회는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대학에서 배워왔던 진리와 정의로 사회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다른것에서 새롭게만 나아간다. 이제 떠나가는 가벼워야 〈炳〉

평단동서문화시리즈 ③

모든 교양인과 꿈을 간직한 청소년에게 그리고 100만 대학생에게 바치는 금세기 최고의 고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한결같은 평(評)입니다.

* *

"이런 책이 벌써 나왔어야 한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대단히 행복한 시대에 사는것 같다"
"우리 고대역사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과 동기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을 위해 젊음을 걸어야 할지 알것 같다"
"너무 재미있고 충격적이었다. 이 들만에 다 읽었다"
"자식들한테 꼭 읽히겠다"

낭만적인고고학 산책

C. W. 쎄람 지음/안 경숙 옮김

삽한자루로 신화의 영역, 인류의 집단적 무의식의 심연, 역사의 사각지대에 뛰어든 문화적인 영웅들의 모험에 의해 세계사의 지평은 넓혀지고 신화와 전설로만 여겨지던 많은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전국 유명서점 발매중!!

지방서점주문 서울, 경기, 강원 · 진명 부산 · 한림, 대구 한일, 광주 : 종합 대전 도산, 전안 · 동방

平旦文化社 722-7486

최신간! 사전식 생활영어

영어만의 사기에 기쁨에 충만에 만족시켜 생활영어 마이블

영어회화 5400

● 외대통역협회
● 유명회화서클
● Group Study
교재

이 책으로 영어회화에 자신을 갖게 됩니다.

관문사 765-4572

어문각판 동아일보 장장1500여회연재분 ●가로쓰기날권판매 각권3천원

水滸誌 反詩

우리문단의元老 金八峰

화제집중 중국고전결정판 국내최초 완역판!

전8권 1·2·3권판매중! 매월 나옵니다.

수호지는 단순한 흥미본위의 소설이 아닙니다. 수호지는 젊은이들이 부패정권에 도전하는 이른바 정치소설 입니다. 저유명한 정치집단 양산박 두령 송강의 反詩사건을 어문각판 수호지 2권에서 만나십시오.

金世鍾화백표구용「노지심像」을한폭씩 드립니다!

● 일간스포츠 인기극화 고우영 수호지 원작작품

株式会社 홍文閣 502-7844 502-7844

MBC가 創社紀念 特輯으로 제작한 텔레에세이 「바람속의 들꽃」그 드라머의 문제의 원작!

韓國人의 意識構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著

문화공보부 추천도서·중앙도서관 추천도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1 2 3 4
서민의 의식구조 5
선비의 의식구조 6
근간
동양인의 의식구조 7
서양인의 의식구조 8

세계로 飛上하기 위한 독창적인 한국인의 발자국을 저자 특유의 예리한 필치로 섬세히 造形하고 있는 한국인의 心讀書

신국판 각권 3,500원

신원문화사 ☎95-4343 93-6128 · 94-5202

드릴 있는 사람 마인드콘트롤

무료공개강좌

뛰어난 집중력·기억력·성격개조·피로 스트레스 해소·깊은기도·명상

매주 토 오전10시-12시, 오후3시-5시

회원모집 : 개강 매주 월(오전10시, 오후2시·7시)

덕수궁 정문옆 753-2212

광신안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렌즈 △특별봉사

신안과 1층 (3·1빌딩)
광교중간 724-5559

영어회화—엄청난 효과가 없으면 교재대금을 반환해 드리겠읍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어회화 — 언제 어떻게 다 하시겠읍니까.
영어회화에 성공하려면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영어회화 정복법 — 우선 간단한 전화영어로 귀를 뚫고 말문을 여십시오.
'표준전화영어'는 테이프2개로 작아 보이지만 영어말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교재입니다.
김기중 선생님이 지은 '표준전화영어'라면 당신도 이번 2주일안에 적어도 전화영어만큼은 자유자재로 듣고 말할 수 있읍니다.
AFKN아나운서들의 실감나는 녹음, 김기중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 그리고 따라하기, 받아쓰기, 평가시험 등의 다양한 훈련방법…
단2주만 공부하고 미국인들에게 써먹어봐도 신기할 정도로 척척 잘 알아 듣습니다.
오늘 책방에 들러 '표준전화영어'의 내용과 구성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렇게 알기쉽게 가르쳐주는 책이 있었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읍니다.

표준전화영어

테이프2개+교재1권 8,000원

이 책으로 공부해도 효과를 보지못한 분께는 교재대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단, 본사에 직접 오셔서 구입한 고객에 한합니다.

기·출판사 KEY PUBLISHING CO.

110 서울 종로구 관철동 코아빌딩701호 735-4021·4022